

도, 가축시장 15곳 폐쇄 23일까지 연장

매일 모든 농장 임상예찰·소독... 어미돼지 긴급 접종 A형 백신 16일쯤 수입 ... "공공 분뇨처리장 이용" 당부

전남도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9일까지 실시했던 전남지역 가축시장 15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도는 지난 3월 27일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시장을 2주간 폐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최초 발생농장과 차량 역학 관련이 있는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전국적으로 돼지에 A형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폐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축시장 폐쇄 기간 동안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지역축협에서는 가축시장 내외부의 분뇨 등 오염물 제거와 일제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차량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기를 정비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가축시장 오염물 제거·정소·소독 실행과 출입구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기·대인 소독기 등 소독장비 정비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염소와 어미 돼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비육돼지는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1588-9060·1588-4060)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A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

중할 수 있는 양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와 인접 지역인 충남은 1차 백신접종을 마쳤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어미돼지만 우선 접종을 마쳤다.

하 회장은 "자돈(어린돼지)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은 10일까지 충북 강원, 이만주까지 전북 전남, 다음주부터 경남 경북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경기와 충남은 22일까지 2차 접종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기간을 9일에서 23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는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등을 포함,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민주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 세 확산 본격화

3자 구도 경선 앞두고 지지 세력 확대 총력

컷오프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3인의 세 결집이 18~20일 경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강기정·양향자·이용섭 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경선에 임하는 본인들의 자세를 밝히며 시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가장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양향자 후보는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 새로움과 낡음, 변화와 기득권의 대결로 규정하고 자신을 미래·새로움·변화의 대변자

로 내세웠다. 양 후보는 "광주는 미래·새로움·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광주가 필요하다면 양향자가 유일한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변화가 필요 없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료나 정치인 중에서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며 "경험이 많고 광주를 잘 이끌 것이라는 예단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강기정·이용섭 후보를 견제했다.

이용섭 후보는 컷오프에서 탈락했던 이병훈 전 후보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세 확

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병훈 전 후보를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경선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경선 승리를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용섭 후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병훈 전 후보는 "이용섭 후보야말로 진정한 광주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광주를 위한 진정한 후보가 누구인지, 광주발전을 위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 이용섭 후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 페널티를 받아 불리한 위치에 있

게 된 이용섭 후보로서는 이병훈 전 후보의 지지가 과반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형배·최영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강기정 후보도 통합선대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강기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형배·최영호 전 후보의 좋은 공약들을 참조했다"며 단일화 공조를 과시하고 서민금융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민형배·최영호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광산구와 남구에서 시행했던 좋은 정책들을 광주시민공동정부의 정책공약으로 내놓았다"며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도, 기능경기대회 기술인 145명 발굴

직종별 1~3위, 10월 전남 개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전남도는 숙련기술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2018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서 145명의 우수 숙련 기술인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는 이날 오전 시상식을 끝으로 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올해 대회에는 기계설비/CAD, 자동차 정비, 용접, 동력제어, 제과제빵 등 36개 직종에 37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열전 결과 금 38명, 은 39명, 동 38명, 우수 30명, 총 145명의 우수 숙련 기술인이 선정됐다.

참가 기관별로는 여수공고가 금 5명, 은 4명, 동 4명, 여수정보과학고

금 4명, 은 4명, 동 2명, 순천공고가 금 3명, 은 4명, 동 4명, 나주공고가 금 2명, 은 2명, 동 2명, 목포공고가 금 1명, 은 3명, 동 1명 등을 배출했다.

각 직종별 1, 2, 3위 입상자들은 오는 10월, 16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2018 전라남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선수로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게 된다.

전국대회 직종별 우수 입상자는 최대 1천200만 원의 시상금과 함께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2019년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김영민 기자 3732500@

광주시 '안전한국' 훈련 만반 대비

6만 55명 기획팀 구성... 실제상황 입체훈련

광주시는 2018 안전한국훈련의 컨트를 타워 기능을 수행할 훈련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실장을 총괄팀장으로 기획총괄반, 실시간, 평가반, 행·재정반, 홍보반, 자문단 등 6개반 55명으로 구성한다.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 유관기관 실무자 13명, 민간전문가 3명, 시민단체 4명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날 사전회의를 하고 훈련 시행계획 공유, 팀별 임무와 역할 부여 등을 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등 복합재난과 화재

에 대한 대피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재난 취약계층 참여형 훈련 등 현장훈련 위주로 한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재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인 훈련을 한다.

광주시는 훈련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단계별 컨설팅을 병행한다.

훈련 시민참여단 규모를 지난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도, 청소년 맞춤형 안전문화운동 공모

청소년 호기심 유발 프로그램 17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2018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를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소년 안전문화운동'은 생활습관이 정립되는 청소년들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맞춤형 청소년 안전 교육훈련 사업이다.

이는 '재미+안전', '과학+안전' 등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의식 함양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해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전남에 기반을 둔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전문기관과 컨소시엄(협력) 추진을 허용했다.

공모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안전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3732500@

6.13 지방선거 브리핑

고석규 前 목포대 총장,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9일 "전남 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여는 힘 있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6·13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전 총장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학교폭력과 미세먼지 등 안전문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공교육이 위기를 받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을 오로지 사람을 키우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고 전 총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 교육현장이 갖춰야 할 과제는 안전과 자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전남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힘 있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에서 전남 SOC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광주시가 (광주공항이전)에 따른 부담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무안공항에서 광주-진주-부산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남해안 고

속철도(KTX)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광주-부산 간 교통망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해 남해안 인구 2천만의 경제적 동반 성장과 함께 영호남 대통합을 도모하여 신해양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권오봉 "여수에 촘촘한 그물망식 복지 구상"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9일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촘촘한 복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고 고통받는 이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은 우리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두 달 간 그실을 물렀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특히, 비수급 빈곤층과 장애인 등의 적극적인 발굴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위기가정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6·13지방선거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한 강진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9일 "군 예산 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앞으로 5000억원 달성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강진군수로 지난 1일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강진원 예비후보는 이날 강진시외버스터미널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강 예비후보는 "강진읍을 상가 활성화의 중심이 돼 유통, 문화, 청년, 스포츠

등 일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진 예비후보는 "재선이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 도비 확보를 통해 오늘의 강진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문상필 "청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구청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 일자리 창출을 구청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북구의 경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일자리부족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부족은 구매력을 감소시켜 자영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북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선인 만큼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매일매일 구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일자리 성과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신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윤봉근,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서 감사패

윤봉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박기복 감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7시 롯데시네마 광주점에서 열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전국 순회 첫 시사회에서 영화 제작에 후원하고 참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를 시자

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출정식을 겸한 영화 후원감사시사회를 연다. 영화는 최근 옛 전남도청 앞 일일영화제 시각 장면 촬영을 끝으로 2년여의 제작을 마치고 5·18민주화운동 38돌을 맞는 5월에 개봉 예정이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